

주말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 '코로나 방심' 걱정된다

거리두기 완화에 진도쏠비치·여수 디오션 등 예약 팍 차
지역민 제주 여행 계획 등 항공·KTX 이용객도 증가 추세
전남 휴양림·수목원도속속 문 열어 지자체 방역 '초비상'

김화수(43)씨는 부모님 생신을 앞두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인 24-26일 전남 진도 쏠비치 예약을 문의했다가 빈 방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집단 행사나 모임, 외출 등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쉽게 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 맞는 첫 주말을 앞두고 지역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도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 활동을 권고하고 나섰다.
23일 전남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콘도, 호텔, 골프장의 평균 예약률이

97%를 넘어섰다.
진도 쏠비치는 전체 576개 객실 가운데 550개 객실이 꽉 들어찼다. 예약률은 95%지만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진도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인데다, 바다와 맞닿은 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지역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진도대교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진도대교에서 우선적인 검역과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지는 점도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는 점으로 꼽힌다.
여수 디오션 리조트도 콘도 128실 가운데 125실 예약이 끝난 상태다. 골프장인 디오션 C.C는 예약 마지노선인 80팀의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코로나 여파로 급감했던 광주송정역 KTX열차 이용객도 이번 주 다소 늘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이후 예년 대비 40%대에 머물렀던 이용객 수가 이번 주 50%까지 증가했다. 코레일 측은 주말 사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주로의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기와 강원, 영남으로 발길을 옮기기에 부담스럽다는 점에서도.
광주시 관광협회 측은 "제주도의 경우 이번 주말부터 연휴가 긴 다음주까지 숙박업소 예약이 힘든 상황"이라며 "단체관광은 침체 수준이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주말 근교로 나서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특수 시기'인 다음주까지 탑승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휴양림인 순천 낙안민속휴양림, 장성 방장산휴양림, 장흥 천관산휴양림과 완도 국립수목원 등도 일부 개관하면서 모처럼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탐방객들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해 탐방객 간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고,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는 '탐방거리 두기'를 당부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도 관광지, 휴양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도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구는 오는 5월 5일까지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운천저수지와 모든 지하철 역사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북구도 주말을 앞두고 인근 근린공원과 아파트 주변 놀이터 등에 대한 방역에 나선다. 동구도 젊은층이 많이 찾는 문화전당 하늘마당과 등산객이 몰리는 중심사 주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방역만큼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친동생 혐의 전면 부인

어제 첫 재판... 검찰 "특혜성 납품 계약 증명할 것"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처음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주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의 첫 재판을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는 광주시에 대한 편의 제공을 호반그룹에 제안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1만7112 t) 납품 기회를 받아 4억

2000여만원의 마진을 얻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려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알선행위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은 또 "서류 작성만 2018년 초에 했을 뿐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이 출마를 예상조차 못하던 2017년 가을에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서 대출도 예약제로 2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현관에서 전날 도서 대출 예약서비스로 책을 예약한 회원이 직원에게 도서를 건네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자가격리 위반 무단 이탈 20대 여성 송치

목포경찰, 기소 의견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목포경찰은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단이탈해 광주까지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광주 집에 방문해 취업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중 편의점에도 들렀다.
A씨는 보건당국과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밀린 판공비 달라" 조선대 전 이사장 패소

상근 자료 없고 하루만 출근해도 업무추진비 50만원 지급 드러나

법원 "보수 지급 대상 인정 부족"

조선대 전 이사장이 밀린 판공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조선대는 하루만 출근해도 이사장에게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김운선 부장판사는 조선대 전 이사장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지급 소송에서 조선대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근 임원으로 학교의 판공비 지급 규정에 따라 월 500만원의 기관판공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임기 만료일인 지난 2017년 2월까지 14개월 간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같은 기간 받은 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제외한 60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근 임원으로 보수 지급 대상이거나 기관판공비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조선대 사무실에 상근했다는 자료도 없고 1회 방문 때마다 5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지급된 월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내지 150만원으로, 사무실 출근 횟수가 월 2-3회 정도라는 점, 상임이사로 임명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대는 지난 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

비상근 이사장인 A씨에게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억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자 판공비 지급을 중단했고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5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조선대는 이 시기, 교육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바 있다. A씨도 교육부 감사로 인한 경고 처분을 받은 데 불복,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다이렉트, AIG, NH농협손해보험